

◆ 교회목표 ◆

천국일꾼을 키우자
지역사회에 봉사하자
우리세대에 민족복음화를 이룩하자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자

주간 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마가복음 14:23)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디모데후서 1:14)

발행처: 대한예수교 총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552-8200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신성종 편집인:오태희 편집국장:조선근

오늘 선교주일로 지켜

선교헌금 작성 및 선교에 관한 공부
선교에 대한 새로운 결심과 헌신이 있어야

〈아집트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준교 선교사〉

교회는 오늘을 선교주일로 지킨다. 매년 1월 마지막 주일을 선교주일로 정하고 선교에 대한 이해와 관심의 폭을 넓히고 새롭게 하여 온 교우들이 선교에 동참케 하고자 한다.

선교위원회(위원장 하대선 장로)에서는 이를 위하여 I, II, III, IV부 예배시 1993년도 선교헌금을 작성하는 시간을 갖는다. 오늘 전 교회학교에서는 선교에 관한 주제의 설교와 선교위원회가 작성한 선교에 관한 공과(마가복음 16:6-10)를 가지고 공부하게 된다.

또한 오후 4시에는 갈릴리홀에서 선교위원회 총회로 모여 '93 선교국별 선교실행위원과 기도위원들을 확정, 발표하게 되며 그동안 서사무아에서 활동하던 박행렬 평신도 선교사의 보고도 있게된다.

저녁 찬양예배도 선교위원회의 헌신예배로 드려지게 된다. 이처럼 오늘 선교주일을 맞으며, 전 교회가 선교에 대해 다시 한번 새롭게 결심하고 헌신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명하신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지향해야 할 선교의 사명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야 할 것이다.

우리 교회는 현재 9개국에 11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다.

이원철 장로 소천

우리 교회의 이원철 장로(휴직중)가 지난 1월 25일 아침,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을 떠났다. 고 이원철 장로는 1977년 우리 교회 19대 장로로 취임하여 봉사하던 중 신병으로 10여년 동안 휴직 상태에 있었다. 장례식은 당회장 신성종 목사의 집례로 교회뜰에서 치뤄졌고 충현동산에 안장됐다.



전 교회학교 겨울수련회

금주에는 대학부(1-4일), 청년 3부 (4-7일)

1월 하순으로 접어들면서 교회학교는 1993년도 겨울수련회 준비 및 진행으로 한창이다. 중등 1, 2, 3부는 지난 주까지 모두 마쳐졌으며 앞으로 있을 부처에서는 겨울수련회 준비 모임 및 기도회 등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겨울수련회는 3월2일 청년1부를 마지막으로 모두 마치게 되는데 금년도 겨울수련

회의 장소로 국민학생부는 주로 교회당에서 모이고 중학생 이상의 부서는 충현기도원을 이용할 예정이다. 강사도 주로 교회 내의 교역자들이 담당하게 되어 겨울수련회의 특징인 내적인 성숙과 일치 등에 초점을 두고 계획, 진행하는 수련회로 나타나고 있다.

각 교회학교의 겨울 수련회 개요는 다음과 같다. (교육위원회에 보고된 내용)

부서	날 짜	장 소	주 제	강 사
영아부	2.22 - 2.23		작은 왕자	정연희 전도사
유치부	2.22 - 2.24	교육관	예수님 닮고 싶어요	김정자 전도사
초등1부	2.22 - 2.24	교육관	예수님을 만납시다	김필수 전도사
초등2부	2.22 - 2.24	교육관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	정갑신 전도사
초등3부	2.22 - 2.24	교육관	예수님과 함께하는 어린이	이홍성 목사
초등4부	2.22 - 2.24	교육관	천국 시민의 생활	장상기 목사
초등5부	2.22 - 2.24	교육관	생명의 양식을 먹자	성봉환 목사
초등6부	2.22 - 2.24	교육관	경건의 능력을 갖추자	한용관 목사
중등1부	1.28 - 1.29	충현기도원	위엿 것을 찾으라	김희수 목사
중등2부	1.14 - 1.15	충현기도원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이종대 목사
중등3부	1.28 - 1.30	교육관	너희 목은 땅을 기경하라	정연해 목사
고등부	2.15 - 2.17	충현기도원	기독 학생의 학교생활	장봉생 목사
대학부	2.1 - 2.4	충현기도원	절망은 곧 회망입니다	이병각 목사
청년1부	2.28 - 3.2	교육관	예수 제자의 비전	정삼지 목사, 윤삼중 강도사
청년2부	2.27 - 3.1	충현기도원	땀 흘리는 그리스도인	이조웅목사, 김창수 목사
청년3부	2.4 - 2.7	충현기도원	생명력 있는 신앙	
장년1부	2.11	갈릴리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권성수 목사
사랑부	3.1	교육관	힘써 하나님을 알자	이홍성 목사
예배다부	2.22 - 2.23	교육관	훈전시키시는 하나님	김성윤 목사, 이준우 전도사

제1교구 새가족 환영 및 친교모임

제1교구(교구장 이종석 장로)는 오늘 2월 11일(목) 오후 7시 선교관 지하1층 만나홀에서 새가족 환영 및 친교모임을 갖는다. 새해를 맞으며 단합과 화목을 위해 모이는 이 모임은 1교구의 성도들 모두(불신가족 포함)와 그동안 1교구에 등록한 새가족 모두가 참여하게 된다.

원로목사, 당회장 동정

1. 원로목사

- 지난 1월 25일 부흥사 협의회 총회에 참석해서 설교를 했다.
- 오는 2월 1-4일 부산 전포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하실 예정이다.

◆ 이 사람을 만나보시 ◆

한국 기독교 역사를 대하소설로

국민일보에 '바람 바람 새바람', 지난 21일부터 연재

당회장 신성종 목사 사모 이진숙(李鍵淑) 씨 집필

제 1월 21일부터 국민일보 23면에는 '바람 바람 새바람'이라는 새로운 소설이 등장했다. 원래 신문 소설을 잘리지 않는 국민일보에게 이는 더욱 눈에 띄었다.

우리 교회 신성종 목사의 사모인 이진숙 씨가 쓰는 이 소설은 국내 최초로 한국 기독교 100년 역사를 새 시각에 맞춰 조명한 대하소설이란 점에서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이진숙 사모를 만나 잠시 이야기를 나눠 보았다.

— 작품의 배경 및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 평안북도 의주, 평양 및 서울을 배경으로 만석꾼과 중, 백정 등 천민계급이 주연을 맡아들었고 성령에 의해 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그린 것입니다. 전체가 5부로 〈프롤로그〉, 〈어둠 속에 자는 바람〉, 〈새벽

에 깨어난 바람〉, 〈아침 미풍〉, 〈경오의 광풍〉, 〈오후의 열풍〉등 전 5부로 구성됩니다.

— 이 작품을 위해 준비기간은 얼마동안 가졌습니까?
▶ 5년 이상을 당시 풍습과 환경, 말투 등의 고증 자료를 수집하느라 애썼습니다. 그중 의주 지역 방언을 표현하는데 가장 애를 먹었지



요. 준비하면서 우리 민족은 종교성이 무척 강하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굿, 점, 무당 등이 1부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이 그것들에 심취했던 만큼 성령의 역사를 강하게 수용했다고 봅니다.

저는 우리나라 기독교가 외국 선교사들에 의해 발전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족의 풍부한 종

교적 심성이 오늘날의 한국기독교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 제목에 표현된 '바람 바람 새바람'이란 어떤 의미입니까?

▶ 여기에 나오는 바람은 모두 "성령"을 나타냅니다. 무속신앙에 갇혀있던 민족이 기독교를 받아들인 후의 "성령"에 의한 의식변화 과정을 큰 흐름으로 잡고 집필하려고 합니다

이진숙 사모는 1981년 한국일보 신춘문예에 단편 '양로원'이 당선되면서 문단에 데뷔했다. 그후 꾸준한 창작활동을 했고, 장작집 '광월병', 장편 '에덴의 국경', '이브의 깃발', 수필집 '엄마 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사람들' 등 다수의 책을 내었다.

對談 本사주필 한명수 목사

충현교회 선교사 파송현황 및 기도제목

충현교회는 교회설립 15주년이 되는 1968년에 해외복음선교회를 조직하고 1971년 인도네시아에 서만수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해외선교에 대한 첫걸음을 시작했다. 이 일은 그 당시 선교에 대하여 잠자고 있던 한국 교회에 선교의 불을 당긴 것이었다. 교회는 그후 꾸준히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선교에 대한 경험을 축적해 왔고 이제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선교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1993년도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이들을 늘 마음에 두고 함께 기도하고자 이런 지면을 마련했다. <편집자>

서만수 선교사(인도네시아)



- 파송년월일 : 1971. 9. 9
- 가족 : 서만수 선교사, 정소라 사모
- 주소 : P.O Box 2355 JKT. Jakarta 10001 Indonesia (Tel : 001-62-21-503-0037 Fax : 001-62-21-548-1313)

• 사역 :

- 1) 자카르타 한인교회에서 목회 중이다
- 2) 문서를 통한 원주민 선교와 사부 뉴기니아(이리안자야) 지역 선교에 주력하고 있다.
- 3) 군 단위까지 교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기독교 대학을 설립하여 50여명의 학생을 모집하여 현재 교육 중. 추후 정식 허가를 취득할 예정이다.

• 기도제목 :

- 1) 개척된 60 여개의 원주민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 2) 한국 선교사의 추가 파송을 위하여
- 3) 기독교 기술학교의 설립과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 4) 인도네시아 신학교 건립을 위하여
- 5) 선교사님의 건강과 성령충만을 위하여
- 6) 사모님의 건강 회복을 위하여

육호기 선교사(독일)



- 파송년월일 : 1976. 12. 20
- 가족 : 육호기 선교사, 육혜진, 육종승
- 주소 : Leuchte 96 6006 Frankfurt/M. 60 Deutschland (Tel : 001-49-6109-36850 Fax : 001-49-6109-36695)

• 사역 :

- 1) 한인교회에서 목회하며 교포전도 및 독일인 전도에 주력하고 있다
- 2) 구 소련 및 동구권에 대한 선교를 하고 있으며 성경 반입 등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있다

• 기도제목 :

- 1) 동구권 선교를 위해 계속적으로 보내는 성경책을 통해 구원의 역사에 일임하도록
- 2) 독일의 교포사회 사역과 성장을 위하여
- 3) 아들 종승 군이 사교로 부터의 빠른 건강회복을 위하여

이준교 선교사(이집트)

- 파송년월일 : 1979. 10. 30
- 가족 : 이준교 선교사, 김수련 사모, 이석진, 이석현

- 주소 : Maadi P.O.Box 334 Cairo Egypt (Tel : 001-202-3504620)

• 사역 :

- 1) 카이로 한인교회에서 목회
- 2) 애굽 복음주의신학교에서 교회 성장학을 강의하며 제자를 양성하고 있음
- 3) 현지 사역자들과 협력하여 교회를 개척하며 한인교회, 지교회, 개척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 수고하고 계심
- 4) 현지인 교회, 특히 농촌 교회를 순회하면서 각종 수양회 및 세미나를 인도하고 있음



• 기도제목 :

- 1) 이름뿐인 기독교인들이 거듭난 신자가 되도록
- 2) 카이로 한인교회와 개척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하여
- 3) 애굽신학교를 위하여

김주경 선교사(이스라엘)

- 파송년월일 : 1984. 6. 27
- 가족 : 김주경 선교사, 양천근 사모, 김한희
- 주소 : P.O Box 23852 Jerusalem 91237 Israel (Tel & Fax : 001-972-2-868601)

• 사역 :

- 1) 예루살렘 한인교회에서 목회중임

세계선교를 위한 우리의 기도

선교위원회는 성도들이 언제 어디서나 "당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마음에 새기고 아래와 같은 제목으로 기도해줄 것을 바라고 있다.



- 1) 세계선교를 위한 성령의 바람이 강하게 불어 침몬 선교의 일꾼들이 불일듯 일어나게 하소서

- 2) 현재 9개국에서 담과 눈물로 복음을 전하는 11명의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더 하사 사역의 열매들을 풍성히 맺게 하소서

- 3) 이 나라 이 민족이 복음으로 하사되어 2천만 북한 동포들과 함께 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소서

- 4)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을 따라 온 세계를 복음화 시키는 비전과 열정이 우리교회에 충만하여 세계 선교의 제사장 교회가 되게 하소서

- 5) 충현에 온 성도들이 주님께 멎히신 세계선교를 위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협력하고 자원하게 하소서

- 6) 새롭고 충현의 선교위원회와 각 선교전별, 실행위원 및 기도대원들이 각 선교지역과 선교사 및 그 가족을 위해 항상 기도하며 적극적으로 협력하게 하소서

- 7)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전 세계의 형제, 자매들에게 하루 빨리 복음이 전해지게 하소서



- 2) 현지 아랍인 선교와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협력선교를 하고 있음
- 3) 성지연구소 건립을 위해 준비중임
- 4) 성지 순례자들을 안내, 통역하면서 복음전도 활동을 하고 있음

• 기도제목 :

- 1) 현지인 목회자 양성을 위하여
- 2) 다른 나라 유대인 선교기관과 밀접한 관계를 위하여
- 3) 선교기지 구축을 위해
- 4) 성지연구소 건립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안석렬 선교사(수리남)



- 파송년월일 : 1990. 3. 1
- 가족 : 안석렬 선교사, 이성옥 사모, 안소영, 안위영, 안요한
- 주소 : P.O Box 681 Paramaribo, Surinam (Tel & Fax : 001-597-45-2816)

• 사역 :

- 1) 한인교회를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는 성경공부를 통하여 제자를 양성하고 있음
- 2) 노방 전도를 하면서 원주민 전도를 하고 있음
- 3) 일간지에 성경 구절을 실은 광고를 게재함으로써 전도의 효과를 꾀하고 있음
- 4) 현지에 취업중인 중국인 및 조선족 선원들을 대상으로 사역하고 있음
- 5) 선교를 희망하는 인도인, 인도네시아인, 중국인들과 협력하여 사역을 전개하고 있음

• 기도제목 :

- 1) 화란어와 영어의 언어훈련을 위하여
- 2) 가족의 건강을 위하여
- 3) 자녀들의 건강과 학업을 위하여
- 4) 한식년을 원만히 준비할 수 있도록

김은비 선교사(홍콩)

- 파송년월일 : 1991. 6. 16
- 가족 : 김은비 선교사, 박인숙 사모, 김서약, 김이삭
- 주소 : Flat D: 14 Fl. Kam sing Mansion Taikoo Shing Hong Kong (Tel : 001-852-885-2002 Fax : 001-852-578-1080)



• 사역 :

- 1) 91년 11월 둘째주부터 매주 선교모임을 개최
- 2) 교민 및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사역하고 있음
- 3) 현재 광둥어 언어 훈련중임

• 기도제목 :

- 1) 새롭게 출발한 중국인 예배가 부흥할 수 있도록
- 2) TWR 방송 사역을 위하여
- 3) 매일 드리는 새벽기도의 제단이 풍성하여 지도록
- 4) 자녀교육을 위하여
- 5) 언어훈련을 위하여
- 6) 선교의 도구로 쓰임 받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병세 평신도선교사(일본)



• 파송년월일 : 1976. 4. 3
• 가 족 : 유병세 선교사, 이윤호
• 주 소 : 日本國 京都府 羽曳野市 道立診療所(Tel : 001-

81-1648-2-3154)

• 사역 :

- 1) 평신도 선교사로서 한방치료를 하면서 영혼 구원에 노력하고 있음
- 2) 한인 교회를 중심으로 원주민을 향한 선교활동을 하고 있음

• 기도제목 :

- 1) 우상타파와 일본의 복음화를 위하여
- 2) 의료진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 3) 선교사님께서 연로하신데 선교사님의 건강을 위하여

김형선,한영자 평신도 선교사(뉴질랜드)

• 파송년월일 : 1988. 1. 10

• 가 족 : 김형선 선교사, 한영자, 김희정, 김남희, 김현주, 김우성

• 기도제목 :

- 1) 출국준비가 원만히 잘 진행되도록
- 2) 출국전까지 사역을 위한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 이기성 선교사

김형선 선교사 ▲

이기성,박정아 평신도 선교사(호주)

• 파송년월일 : 1993. 1. 10

• 가 족 : 이기성 선교사, 박정아, 이은송, 이진태, 이진영

• 기도제목 :

- 1) 현지 적응을 잘할 수 있도록
- 2)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충현의 만나》 2월호 발간

우리 교회 가정예배 안내서인 《충현의 만나》 2월호가 발간됐다. 이번 충현의 만남은 지난호에 이어 신명기 10:1 ~ 23:25 까지의 본문을 중심으로 가정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했다. 2월호는 조동원, 한용관, 성봉환, 조운재, 이종대, 장광옥 목사가 집필했다.

충현의 만나



또한 2월 구역예배용 공과도 함께 실어 구역예배시에도 사용할 수 있게 했다. 구역예배 공과는 성경연구원 지도 이조웅 목사가 집필했다.

장애인 돕기 가스펠 자선공연

1993년 1월 28일 (목) 오후 6시 30분부터 나사렛홀에서 대학부 학생들이 '93 바람그리기' 라는 제목으로 가스펠 공연을 가졌다.

찬양에 관심이 있는 대학생들이 모여 시작한 작은 모임이 자선공연이라는 결실을 맺게 되었는데 기존의 찬양곡뿐 아니라 자작한 곡도 처음으로 발표하기도 하였다. 이 공연은 하나님으로 부터 받은 찬양이라는 달란트를 통해 장애인과 같은 소외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이 공연을 통한 수익금은 장애인들을 위해 쓰여질 예정이다.

<주간충현> 오늘로 200호

<주간충현>이 오늘로 200호를 대게된다. 주간충현은 1989년 3월4일 창간호를 낸 뒤 4년 만에 200호를 맞았다. 교인의 증가와 전달되어야 할 정보가 많아짐에 따라 월간으로 내던 것을 주간으로 개편하고 <주간충현>은 성격을 달리하는 <개간충현>으로 바꾸면서 <주간충현>을 창간한 것이다. 새해들어 <주간충현>은 보다 다양한 편집과 알찬 내용으로 성도들 간의 교제와 대화의 장으로 역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 우리는 지금 ✧

최상의 음질과 최고의 영상을 위해 기도하며 애쓰는 음향실 관계자들



예배 및 모든 집회 시간에 항상 1시간 전부터 와서 모든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어느 곳에서 무슨 집회가 있는지 반드시 거기에 미리 와서 모든 준비를 마치고 시작 시간을 기다려준다. 예배가 없으면 어디든 예배와 모든 집회가 진행되지 못할 것이다. 이는 바로 음향실 직원들이다.

음향실은 교회 본당 중대 5층에 자리잡고 있다. 5층 음향실은 각종 기계와 계기들로 가득 차 있다. 한편에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사반어 등의 팻말이 붙어있는 동시통역실이 있고, 음향실 정면은 대형 유리창이 있어 본당 예배실의 모든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예배의 진행을 보며 각종 계기들을 조작한다. 음향실 곳곳에는 "설교자와의 영적교통", "기도로 준비하자", 또는 "성령께 의지하자"라는 글들이 붙어 있어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당혹감 따위 준다. 음향실의 일들과 설교자와 영적교통이 무슨 연관이 있는 것이지? "그렇게 않습니다. 설교자의 전향상태, 기분, 감성상태

등에까지 신경을 쓰며 살피야 제대로 음향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고 음향실 책임자 김 집사는 말한다.

음향실에는 김집 집사를 책임자로 해서 유정순, 정숙애, 이수훈, 김홍국 선생이 상주 직원으로 있고 주일에는 20여명 정도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해서 이 일을 맡고 있다.

음향실에서 하는 일들은 많다. 교회내에 70여개에 달하는 각 집회실의 마이크 및 앰프 시설을 관리, 보수하고, 집회제일 작동에 되도록 늘 점검해야 하고, 분담, 갈릴리움, 베디나움, 나사렛홀 등에는 늘 대기하며 그 상황을 살피야 한다. 또한 주일 및 모든 예배와 집회의 영상을 위해 모든 내용을 중계하고, 촬영하며 예배시간 중에 TV화면을 제공하는 일과 이를 편집, 복사하여 자료로 보관하고, 보급소에 보내 보급하며, 전도용으로 배포하는 일 등을 하고 있다. "이 주일 3부 예배시간에는 전 원원이 관다. 동시통역, 수화

통역 등을 도와야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현재 감당해야 할 많은 일 중에서도 음향실 식구들의 욕심(?)은 크다. "앞으로 기독교 TV방송국이 생길 경우 우리 교회 자체 내에서 프로그램을 작성, 제작하여 TV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교회내의 여러 자료 등을 수집, 정리하여, 교육용 및 전도용, 대외홍보용 및 해외보급을 위한 비디오 테이프 제작 등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일은 의욕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고 좋은 기계와 좋은 인력이 뒤따라야만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런 조건은 좋은 화면, 좋은 음질을 위해서는 필수적이다. 그래서 음향실 자원봉사는 원하기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엄정한 심사와 비디오 영상훈련과 오디오 훈련을 거친 후에야 가능하다.

이들은 오늘도 한 장면의 영상과 완벽한 음질을 위해 하루 종일을 바쳐며 최상의 영상과 설교자가 전혀 부담을 느끼지 않고 설교할 수 있고 교우들이 편하게 들을 수 있는 음질을 위해 엄청난 노력을

쏟아 붓고 있다.

설교자와 청중들에게 극도로 민감해져 있고, 예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이들을 보며, 교우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며 하는 김 집사의 말이 예사롭게 들리지 않는다. "사탄은 영적지도자를 제일 먼저 공격한다고 하지만, 예배에 있어서는 음향관계의 모든 것들을 제일 먼저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으로 준비하고 성령님께 의지 합니다" <영>



▶ 음향실의 식구들은 설교자와 청중들에게 극도로 예민해져 예배진행을 원활하게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